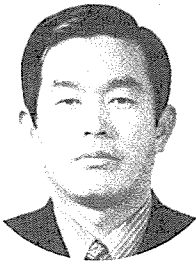


人 間 과 環 境



金 旻 濟
〈東國大農大교수·채소원예〉

人類가 地球上에 存續하며 萬物의 靈長이 될 수 있었던 것은 周圍環境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動物에 비하여 대단히 강하고 아울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동물들이 생활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人間은 環境의 각종 障礙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동물중에서도 人間만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기초로 발전할 수 있었고 환경에 대한 適應性으로 잡다한 物理的 위기를 대처하며 全地球上에 널리 분포되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독특한 想像力과 推理力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인간은 비행기가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고, 자동차등이 없으면 빨리 달릴수도 없으며, 선박이 없으면 바다위를 거닐 수도 없는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現代 科學文明의 획기적인 발달로 이러한 不可能을 可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宇宙船 地球號의 生物圈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된 自然環境의 우범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편하고 不適當한 환경조건을 인간의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위험요소를 개조하여 不良環境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과학의 발달과 진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성장과 팽창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自然環境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수반되는 환경의 오염이 最終制限要素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추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지구상 생물권이 존재하고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의 오염 특히 毒劇物의 종류와 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地球上에 生物體가 全滅되기 전에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生物圈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認知하지 못하며 인간의 생존만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너무나도 남발하면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개발만을 주장하여 森林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벌판을 깎아 방치하였으며 갖은 악취와 쓰레기로 野生動物이나 물고기가 고갈될때까지 강물을 오염시켰다.

안전하고 편리해야 할 도로는 더럽고 복잡한 거리로 바뀌었고, 우리의 집, 학교, 마을은 맑은 공기와 푸른나무와 따뜻한 햇빛을 도의시하고 함부로 축조된 실정이다.

이렇게 복잡한 도심지와 더불어 외곽 신시가지도 결국 인간 중심이라지만 소외된 개발로 인하여 인간이 파 놓은 함정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기계문명이란 미명아래 사로잡혀 도시 교통개발에 몰두한 결과 기계문명과 과학의 노예가 되어 방치한 나머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본능은 망각 상실된 지 이미 오래된 실정이다.

그러하여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과 풍부한 삶의 희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유행병으로 문재시 되고 있는 각종 신경 질환도 이와같이 인간이 희망하고 갈구하는 이상적 환경 즉, 쾌적한 환경으로부터 너무 동 떨어진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반항감에서 비롯된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즉, 地球上 七大公害라 칭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피음, 진동, 악취 및 地盤의 浸下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부담을 탈피하기 위한 필사적 연구노력과 더불어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난, 원료부족 및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소득의 격차등 人類가 地球上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기의 장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간은 이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하여 본능적인 감각과 창조적인 개념으로 끊임없는 과학의 발달을 가져와 식량난을 해소하고 美와 秩序를 추구하고 마찰과 긴장을 배제한 이상적 환

경의 창조를 갈구하게 된 것이다.

매우 오랜세월 동안 이 지구상 대자연속에 수려한 지형이나 강, 호수 및 각종 동식물의 분포는 질서 있고 안정되며 균형된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森林으로 피복된 울창한 山이나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계곡과 풀로 덮힌 벌판이나 무한히 아름답게 연결된 해안선 등은 자연의 신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자연의 모든 조직이 균형있게 원초상태로 잘 유지 보존되어 왔다면 구태여 오늘날 쾌적한 환경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시기부터 인간은 生存을 위하여 自然環境을 파헤치고 自然組織을 파괴만 하였을 뿐 그 자연의 균형과미를 다시 복구하지 않았다. 人工的인 自然環境의 조성은 個人住宅의 庭園이나 대규모 住宅地 開發等에서나 조금씩 찾아 볼 수 밖에 없었으며 大都市內의 多數人口를 위한 自然環境의 개발은 거의 도외시되어 온 실정으로 최근에 와서 심각한 問題點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마음 놓고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인공적인 자연환경 조성과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 모든 구성요소들의 균형된 조직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인 주택이나 빌딩, 정원, 녹지대, 도로 및 공원 그외 공공시설물들이 상호 이상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수려한 자연의 미와 가치는 마땅히 보호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人間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人工的인 어떤 것도 이 자연의 가치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으며 일단 파괴된 자연환경은 아무리 원상회복을 도모한다 해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